

광주 투표율이 중요한 이유

의정단상

강수훈
광주시의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주부터 투표가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일정을 먼저 밝힌 이유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어떤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 3년 전 대선 결과 0.73% 차이를 되돌리는 선거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 대선은 지난 3년동안 권력을 사유화하고, 불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총칼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려고 시도했다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갑자기 생긴 선거다.

대통령 자리에 있던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고, 헌법재판소가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비로소 치러지는 선거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권리

를 위해 앞장서 투쟁해왔던 광주의 투표율은 매우 상징적인 숫자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피로 쓰인 역사 위에서 있고, 그 중심에는 늘 광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국가권력이 시민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부리를 겨눴을 때 광주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도청에 남아 민주주의의 불씨를 끝까지 지켰고, 그 광주정신은 헌법보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정의의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광주는 국가폭력에 정의롭게 맞서야 할 때 행동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면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45년이 지난 지금, 불법 계엄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광주는 또다시 중대한 기로 앞에 놓여있다. 광주의 대선 투표율은 단순한 숫자나 시민 참여율의 문제가 아니라, 도청에서 끝까지 남았던 시민군의 용기, 시민들을 지키려다 희생된 이름없는 청년들의 피와 광주정신을 제대로 승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아니 세계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정치는 국민의 것이다'는 것을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나아가 광주 스스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선배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

광주 시민들이여, 제발 투표에 참여하

자. '침묵은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는 플라톤의 통찰을 되새기자. 우리는 정치에 실망하고, 선거에 회의하며, 투표를 포기한다. 그러나 투표하지 않는 선택은 결코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말 없는 동의이자, 나를 대신해 누군가가 내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결국에는 자기 존엄까지 포기해버리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다.

투표는 단지 한 표를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이사회에 관심이 있고, 내 삶은 소중하다'는 외침이자, 선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의 권리라고 하는 도구는 사용할 때 의미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권리는 점차 사라지거나 누구도 지켜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표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침묵은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이번 대선에서 광주시민들의 투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불법 권력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짜 국민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 출발은 참여에 있고, 그 중심은 광주에 있다. 광주가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향해 소리 낼 때, 그 울림은 전 국민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광주의 투표는 단순한 한 표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책임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社說

중대재해 잇따른 지역 대형사업장 책임을

철저한 조사와 처벌 뒤따라야

광주·전남 주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광주 기아자동차 3공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가 완성차 운반 설비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17일엔 영암 HD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개구부 아래로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21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선 화재가 발생했고, 대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불과 나흘 사이 세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문제는 사고의 본질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구조적 부실이라는 점이다. HD현대삼호 현장에는 덮개를 고정할 장치가 전혀 없었고, 누구라도 실수로 밟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금호타이어 사고 역시 화재 대피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청년 노동자가

연기를 피해 지붕을 타고 내려오다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기업들이 하나같이 지역 대표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먼저 변화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은폐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안전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는 개별 사업장 문제가 아닌 구조적 안전불감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이번 사태를 결코 단순한 산업재해로 넘겨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하청과 원정을 막론한 안전 총괄 책임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반복되는 인명 피해 앞에서 침묵하거나 면피하려는 태도는 결국 지역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합천 '일해공원' 국민에 대한 모욕 아닌가

전두환의 잔재 즉각 청산돼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 세워진 '일해공원'의 이름을 바꾸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인 지난 17~18일 진행된 현장 서명에는 광주시민 4420명이 동의했다. 전씨의 기념공원으로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은 청산해야 될 전두환의 잔재다. 그 잔재를 고집하는 고루한 발상이 부끄럽다.

일해공원은 김대중 정부 때 합천군이 새천년기념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만든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2007년 합천군이 연고 집단을 중심으로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불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합천 시민단체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추진한 일해공원 명칭 변경 국회 청원이 동의 수 10만 명을 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온갖 핑계를 대며 오는 12월31일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다. '늘 그랬듯 국회가 답변을 미루고 또 적당히 폐기할 것이 분명하다'

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생전 전두환씨가 보여줬던 악행은 차고 넘친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그는 군대를 동원해 수많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최종 책임자였다. 하지만 그는 사망할 때까지 사과나 반성은커녕 되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다. 그가 집권하던 기간 수많은 민주인사와 청년학생이 체포돼 불법적 고문을 받았던 것도 기억에 생생하다. 재임 시절 쟁전 전문학석 액수의 검은 돈을 숨겨 놓고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뻔뻔한 언사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전씨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기리는 것은 역사를 외면한 저급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12·3계엄에서 봤듯 헌정질서는 곧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길이다. 정치권은 일해공원이라는 국민에 대한 모욕을 즉각 바로 잡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죄자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기념물 설치도 금지해야 한다. '오늘날 빈곤한 민주주의가 청산되지 못한 과거 내란의 역사 탓'이라는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시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스

서석대

"걷기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혔다." 배우와 작가, 감독으로 유명한 만능 엔터테이너 하정우에게 걷기는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평균 하루 3만 보, 많을 때는 10만 보까지 걷는다는 그는 걷기를 '두 발로 하는 기도'라고 말한다. 건강한 두 다리로 세상을 누비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은 하정우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가져다 준 동력이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기나긴 여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걷기가 있어 가능했다. '내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길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는 하정우의 고백이 공감된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해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몸'과 '걷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프랑스 사회학자 다비드 브르통의 저서 '걷기 예찬'은 걷기의 즐거움을 이야기한 책이다. 브르통에게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자연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이동 방식을 통해 시간을 되찾고, 일상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의미도 컸다. 철학적 사유와도 연결된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주변 세계를 연결해 주는 도구이면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사색을 즐기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게 걷기에 대한 브르통의 평가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도 일찍이 걷기의 중요성을 역설했



다. 약보(藥補)보다 식보(食補)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行補)가 낫다는 것이다. 그 어떤 약이나 음식보다 걷기가 제일이라는 뜻이다. 현대 의학에서도 걷기의 효과는 속속 증명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운동 권고문에는 '하루 30분씩 걸으면 당뇨·심장병·뇌졸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영국에서는 심장병 환자에게 약이 아닌 '걷기'를 처방전으로 내놓는다고 한다.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케냐 마사이족에게 성인병이 거의 없는 것이 보행 덕분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전남일보가 주최하는 무등산 사랑 등반 대회가 24일 오전 8시 30분 문빈정사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는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인 무등산을 걸으며 무등산의 가치를 되새겨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걷기에도 선정된 시민 200명과 학생 100명 등이 참가해 대자연의 신비를 맛보고 수려한 풍광을 만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10km가량 걷다 보면 1000cal 이상이 소모되고 체중이 300~500g 빠진다고 한다. 자연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색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산을 걷는 즐거움이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끝자락, 투명하게 쏟아지는 햇살과 푸르른 신록을 만끽하면서 걷는 즐거움에 빠지고 싶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